

Vol 9. 2017년 3월 20일

Check Point



FI
Weekly



Fixed Income 전병하

02 3779 8633

byunghajeon@ebestsec.co.kr

FOMC 종료, 쉬어가는 구간

Part I 주간 Review & Preview

Part II 주간 Issue 분석: 3월 FOMC Review

Part III Weekly Check Point



Executive Summary

Review: (2017.03.13~2017.03.18)

- 국내: FOMC를 앞둔 주 초반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 금리는 소폭 하락하였다. 미국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4회 인상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금리는 하락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흐름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장세는 지속되었으며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파가 패배한 이유로 금리는 하락폭을 줄였다.
- 선진국: 2주 전부터 줄어든 극우파에 대한 지지도는 결국 총선에서 극우파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 총선 결과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 통화정책 공백기간 중 주목할 만한 이벤트였던 유로존 정치이벤트의 리스크를 한 단계 낮추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유로존은 4월부터 200억 유로 자산매입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 신흥국: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신흥국 금리는 미국 금리인상 이벤트가 실현되고 나서 다시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국가 중 가장 펀더멘털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강세를 보였으며 칠레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소매판매지표 등 내부 지표의 움직임이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Preview: (2017.03.19~2017.03.25)

- 기대했던 유로존 정치리스크가 기대보다는 크게 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두달여간 통화정책 이벤트가 많지 않고 시장 수급과 다른 이벤트,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에 따른 금리흐름을 예상하는데 현재로서는 금리가 하락할 만한 이벤트가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 주요 연준위원들의 발언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리는 소폭 하락압력을 되돌림의 연장선에서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주요 중앙은행 이벤트

일자	국가	이벤트	내용
3월 20일	미국	찰스 에반스 연설(투표권)	-
3월 21일	미국	윌리엄 더들리 연설(투표권)	-
3월 21일	미국	에스더 조지 연설	-
3월 22일	미국	로레타 메스터 연설	-
3월 22일	일본	BOJ 금정위 의사록	-
3월 23일	뉴질랜드	통화정책회의	
3월 23일	필리핀	통화정책회의	금리인상 결정 가능성
3월 23일	타이완	통화정책회의	-
3월 23일	미국	재닛 옐런 연설(투표권)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장의 의중 확인
3월 23일	미국	닐 카시카리 연설(투표권)	금리인상 반대였던 유일한 연은총재로 스탠스 확인
3월 24일	미국	로버트 카플란 연설(투표권)	-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금리인상 이후 되돌림 발생, 장단기금리차 축소

국내 채권금리는 3년물 1.780%, 10년물 2.318%로 시작하였다. 2주차에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연간 4회수준의 매파적인 인식을 드러낼 가능성을 경계한 금리상승 흐름은 2주차 후반부터 반전되기 시작했다. 4회가 아닌 3회 정도의 금리상승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파적이지 않은 태도라면 되돌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주 초반에는 금리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FOMC는 예상된 3회 금리인상, 경기전망을 기존 12월 전망치와 거의 동일한 값을 제시했다. 연준은 올해 2차례 수준의 추가인상을 시사했으며 점도표 역시 연간 3차례 수준의 금리인상만을 의미하는 수준이었다. FOMC 이후 시장금리는 하락압력을 받으면서 한 단계 더 낮은 레벨로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흐름과 연동되는 모습은 지속되었다.

주 후반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파가 집권에 실패하면서 전체적인 리스크가 한층 툰 다운 된 부분이 반영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았다. 주간으로는 금리는 전체적인 만기물에서 모두 하락압력을 받았으나 단기물의 금리하락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금리커브는 플랫닝 되는 모습을 보였다. 3년물은 1.675%, 10년물은 2.179%를 기록하였다.

그림1 국고채 금리 동향과 장단기금리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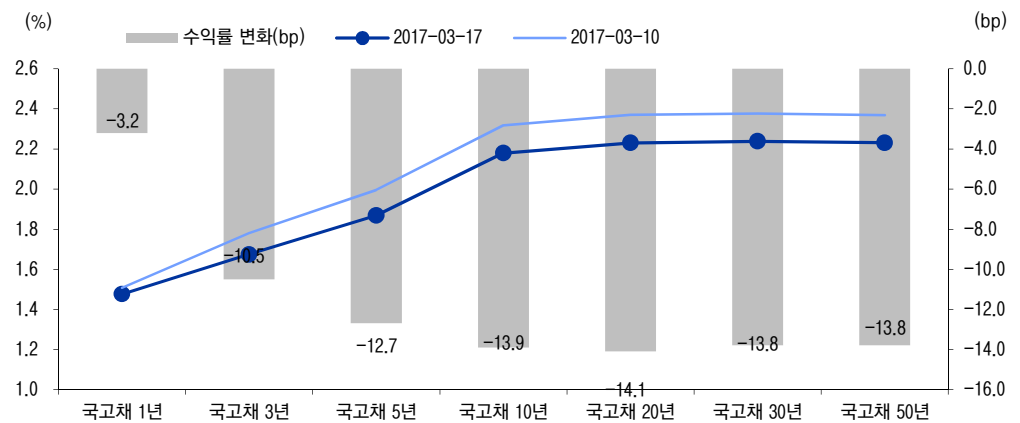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회사채 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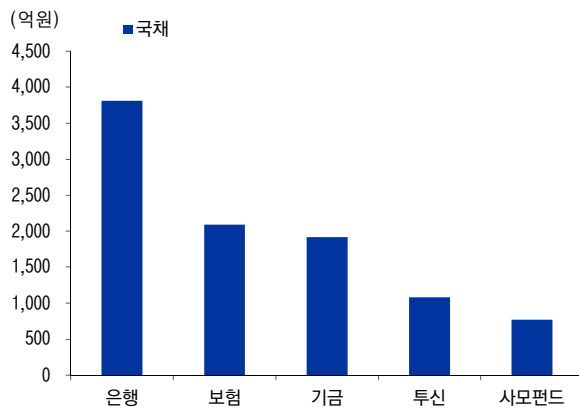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국고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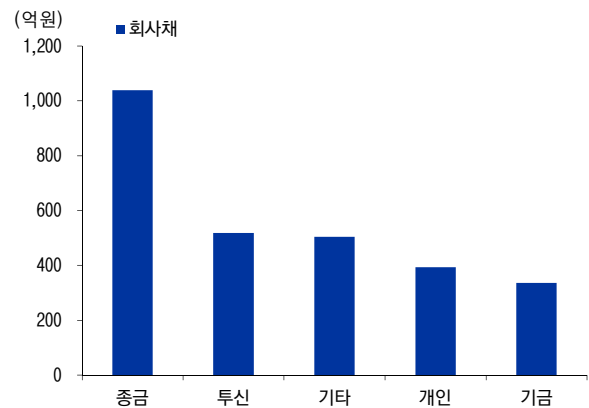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간 국채 매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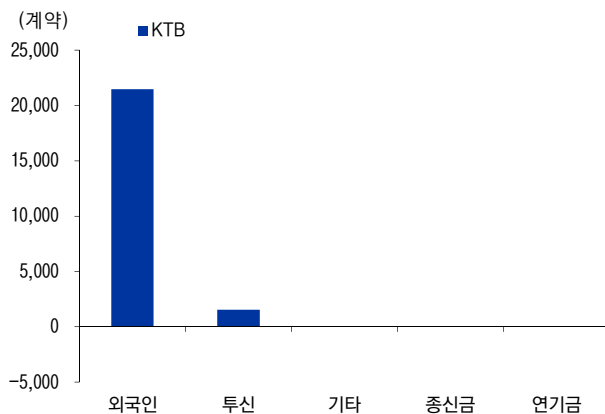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간 회사채 매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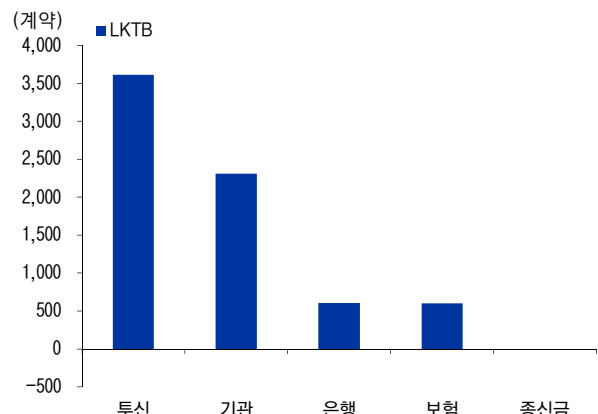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간 국채선물(KTB) 매수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간 국채선물(LKTB) 매수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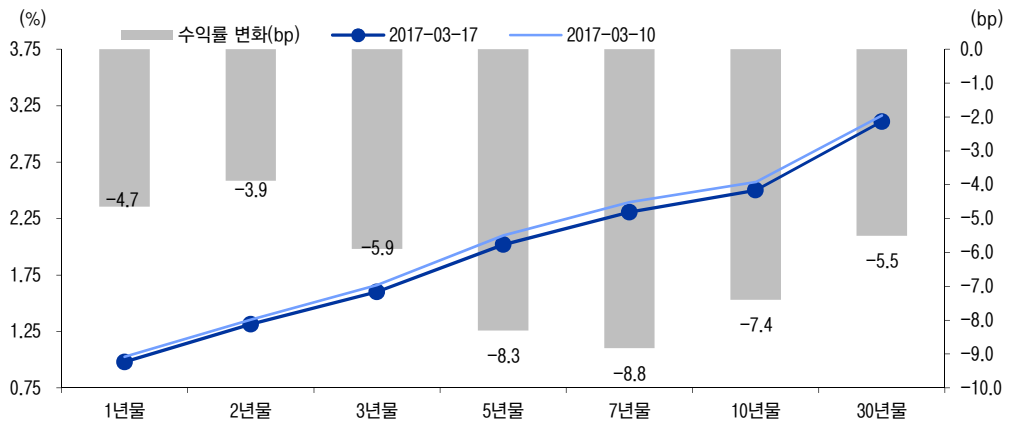
선진국: FOMC 이후 금리 되돌림, 그러나 하락폭은 제한적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세계 금리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시장이 미국 정상화에 대해서 둔감해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시장에서 일부 4회 인상론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을 자극시켰지만 기우에 그쳤다. 연준의 경기전망은 12월 전망치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 경기판단 하에서는 앞으로 2차례의 금리인상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유로존은 4월부터 200억 유로 자산매입규모가 축소된다. 600억 유로 규모로 자산매입을 할 당시의 금리레벨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당시 기준금리가 0.05%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리가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유로존 금리는 주간 미국 금리인상 이후 되돌림을 받았으나 주 후반 들어 네덜란드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단기물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극우파가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점이 유로존의 정치리스크를 톤다운 시킨 효과로 이어졌다. 다만 장기물 구간에서는 금리상승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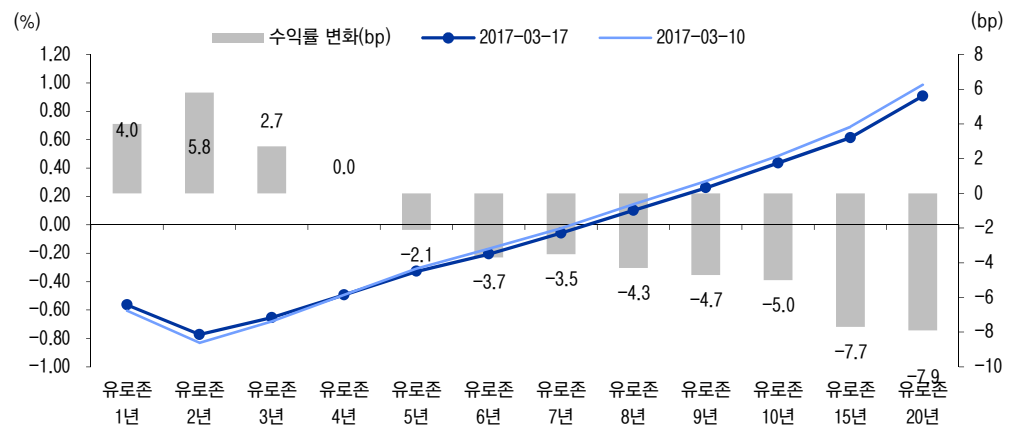
일본채권시장에서는 주간 금리하락압력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했다. 미국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 초반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FOMC가 발표된 날 종료된 BOJ 금정위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평이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렸다. BOJ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당분간 급격한 스탠스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는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후반에는 네덜란드 총선결과 등이 반영된 미국 금리상승에 따라 주간 금리하락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8 주간 미국 국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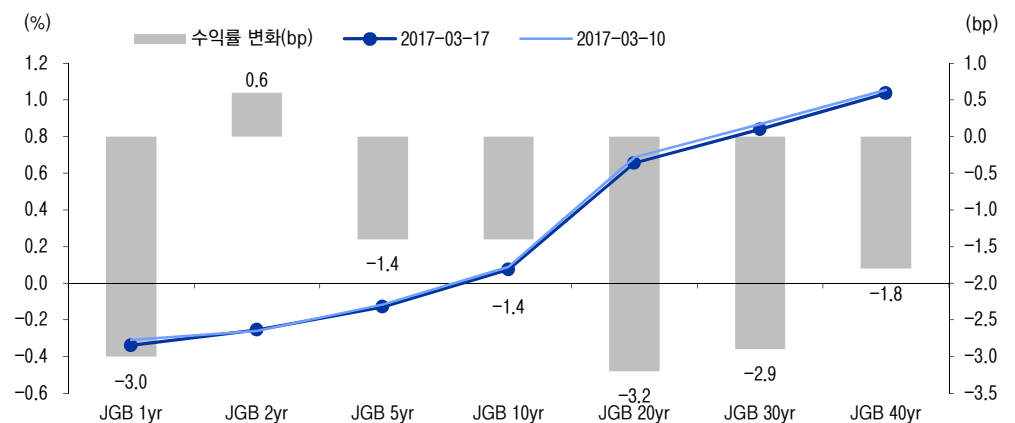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간 유로존 채권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주간 일본 국채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머징 시장: 미국 금리인상 이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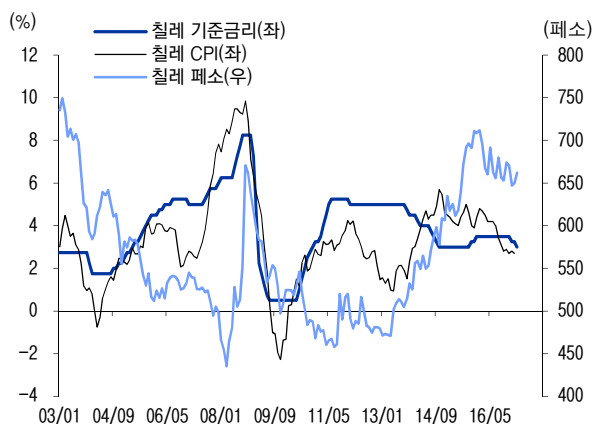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신흥국으로의 자금흐름은 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금리인상이 2017년 연간으로 3회로 전망되자 보다 높은 Yield를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신흥국에 집중할 만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이다. 보다 빠른 금리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국 경제전망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연준의 경제전망은 6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미국이 경제가 매우 급속도의 개선을 보이지 않는 한 6월까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책적 모멘텀도 기대할 만 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루피아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서 주요 산유국을 비롯한 홍콩, 마카오 등의 국가들은 금리를 일제히 인상하였는데, 금주 칠레가 금리를 인하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인하로 총 50bp 금리를 인하하였다. 올해 들어서 금리를 내린 국가는 아르메니아, 칠레, 브라질, 벨라루스 등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국가가 칠레다. 칠레 기준금리는 50bp 인하되어 3.00%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금리를 내린 국가들 중 가장 금리가 낮은 국가는 아르메니아로 6.00%이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상당히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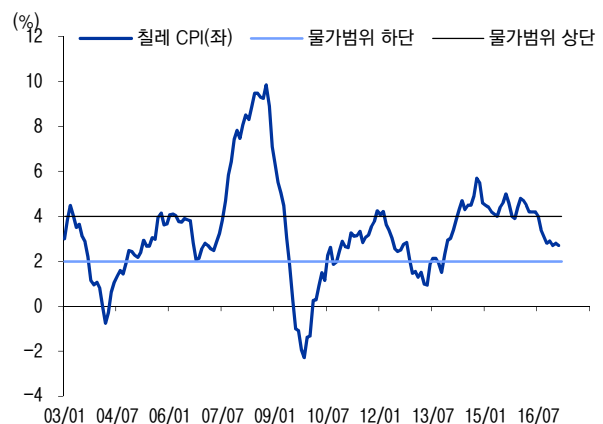
칠레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는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잡은 바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행한 금리 인하이다. 칠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관리범위 하단 부근인 2.7%로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소매판매등 경제의 수요가 부진한 점을 근거로 금리를 두 차례 인하였다. 칠레 물가수준으로 보면 실질금리레벨은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11 칠레 기준금리와 주요 지표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칠레 물가상승률 목표인 3% 아래로 내려왔음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review: 3월 4주차 시장 전망

제한적인 금리 하락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경제전망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금리인상은 많아야 두 차례 정도로 판단된다. 6월 내지는 9월 사이에 경기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두 차례, 경기가 악화되면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미국 경제가 더 빠른 성장을 기록한다면 네 차례 가능성 역시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이 빨라야 6월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3개월여간은 통화정책 공백 구간으로 그 중간에 보이는 유로존 이벤트, 미국 환율보고서 등 국지적인 이벤트가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

3주차 말에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파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프랑스 대선에 대한 낙관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집권당의 의석수가 줄었고 극우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권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은 현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르펜 역시 결선에 가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보면 이번주 시장금리는 다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목요일에 50년물 발행이슈가 있어서 장기물 구간에서는 다소 포지션 조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물량이 3,000억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시장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50년물 발행으로 인하여 커브가 스티프닝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주간 Issue 분석 : 3월 미국 금리인상,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예상되었던 금리인상, 이후 충격은 크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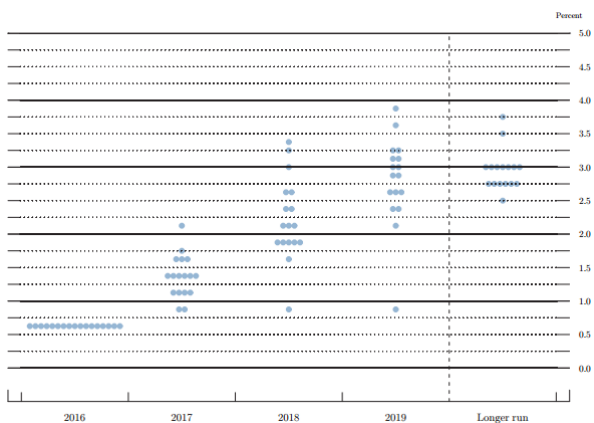
주어진 시장 데이터 변화가 정책문구에 반영

3월 미국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5%~0.75% 범위에서 0.75%~1.00%로 25bp 인상하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95%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명서 문구를 살펴보면 최근 경제지표 변화가 반영된 모습이 보인다. 실업률이 최근 4.8%까지 상승했다가 4.7%로 다시 소폭 하락한 점이 반영되었고, PCE 디플레이터가 1.9%까지 상승한 점 등이 문구에 반영되었다. 점진적인 금리인상에서 지난번 회의와 달라진 점은 'Only'라는 단어가 제외된 점인데 시장에서 accommodative stance를 매우 느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행태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서 지금 점도표에 제시된 향후 2차례 추가 금리인상 전망보다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그러나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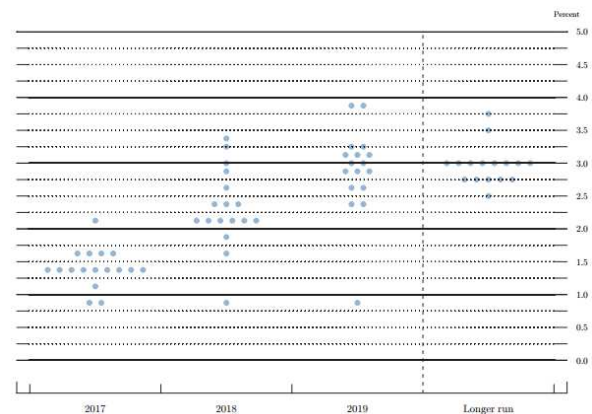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대부분 반영해서 지난 12월 수준까지 금리가 상승했다 소폭 하락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는 아니며 앞으로의 금리인상 전망 역시 예상과 부합한다. 결국 FOMC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남아있는 유로존 정치 이벤트 등의 재료에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13 3월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자료: CM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유가가 어떻게 났든 PCE도 1.9%를 달성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한국은행은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이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기준금리를 따라 올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스탠스를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 2차례 금리인상이 미국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도 중요해졌다. 국내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다. 만약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변화한다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금리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 FOMC 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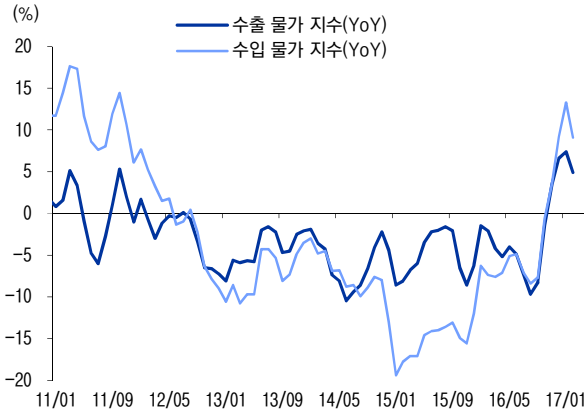
- Job gains remained solid and the unemployment rate **stayed near its recent low**. (2월)
→ Job gains remained solid and the unemployment rate **was little changed in recent months**. (3월)
- Household spending has continued to rise moderately while business fixed investment has **remained soft**. (2월)
→ Household spending has continued to rise moderately while business fixed investment **appears to have firmed somewhat**. (3월)
- Measures of consumer and business sentiment have improved of late. (2월)
→ 삭제 (3월)
- Inflation increased in recent quarters but is still below the Committee' s 2 percent longer-run objective. (2월)
→ Inflation has increased in recent quarters, **moving close to the Committee' s 2 percent longer-run objective**; excluding energy and food prices, inflation was little changed and continued to run somewhat below 2 percent.
- The Committee expects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evolve in a manner that will warrant **only**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2월)
→ The Committee expects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evolve in a manner that will warrant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3월)



Weekly data check point

주간 경제지표 Review

그림15 한국 수출입 물가지수 반전, 인플레이션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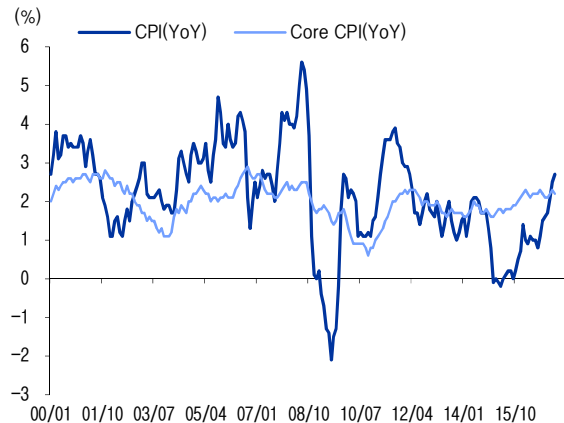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국 실업률 상승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미국 CPI 2.7%, 기준금리 인상 정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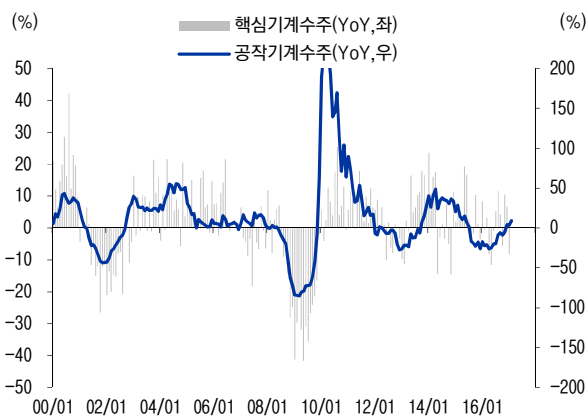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금리인상을 앞두고도 주택건설시장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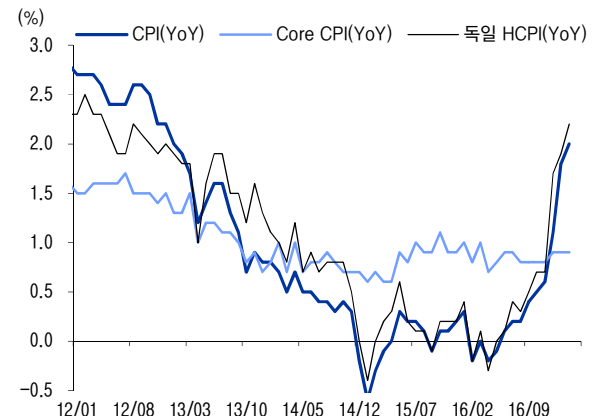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일본 핵심기계수주는 감소, 공작기계수주는 증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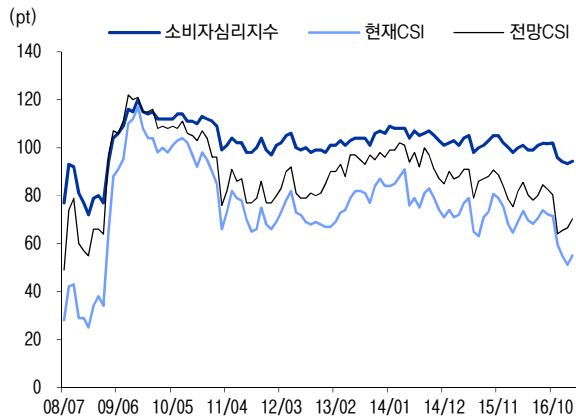
그림 20 그림 18 유로존 물가상승 지속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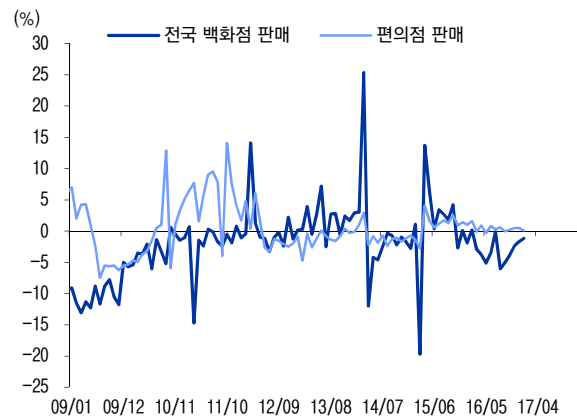
다음주 경제지표 & 주목할만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림21 국내 심리지표 개선 기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일본 소비지표 확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경제지표 발표일정

발표일자	국가	경제지표	월	단위	실제	컨센서스	이전
3월 20일	한국	PPI(YoY)	2	%	-	-	3.7
3월 20일	유로존	노동비용	4Q	%	-	-	1.5
3월 20일	미국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2	pt	-	0.03	-0.05
3월 21일	일본	편의점 판매	2	%	-	-	0.1
3월 21일	한국	관세청 수출	3	%	-	-	26.2
3월 21일	영국	CPI	2	%	-	2.1	1.8
3월 21일	미국	경상수지	4Q	십억 달러	-	-128.1	-113
3월 22일	일본	경상수지	2	십억 엔	-	807.2	-1087
3월 22일	일본	수출	2	%	-	10.1	1.3
3월 22일	일본	전국 백화점 판매	2	%	-	-	-1.2
3월 22일	일본	슈퍼마켓 판매(YoY)	2	%	-	-	-1.6
3월 22일	유로존	경상수지	1	십억 유로	-	-	31
3월 22일	브라질	IBGE 인플레이션 IPCA-15(YoY)	3	%	-	4.73	5.02
3월 22일	미국	기존주택매매	2	백만 건	-	5.56	5.69
3월 22일	미국	FHFA 주택가격지수(MoM)	1	%	-	0.4	0.4
3월 23일	미국	신규주택매매	2	천 건	-	565	555
3월 23일	멕시코	Bi-Weekly CPI(YoY)	3/15	%	-	5.28	5.02
3월 23일	영국	소매판매(자동차연료 제외, YoY)	2	%	-	3.2	2.6
3월 24일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3	pt	-	-5.8	-6.2
3월 24일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3	pt	-	-	94.4
3월 24일	일본	닛케이 일본 PMI 조업	3	pt	-	-	53.3
3월 24일	일본	선행지수	1	pt	-	-	105.5
3월 24일	미국	내구재 주문	2	%	-	1.2	2.0
3월 24일	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	2	백만 달러	-	4600	11528
3월 24일	멕시코	소매판매(YoY)	1	%	-	5.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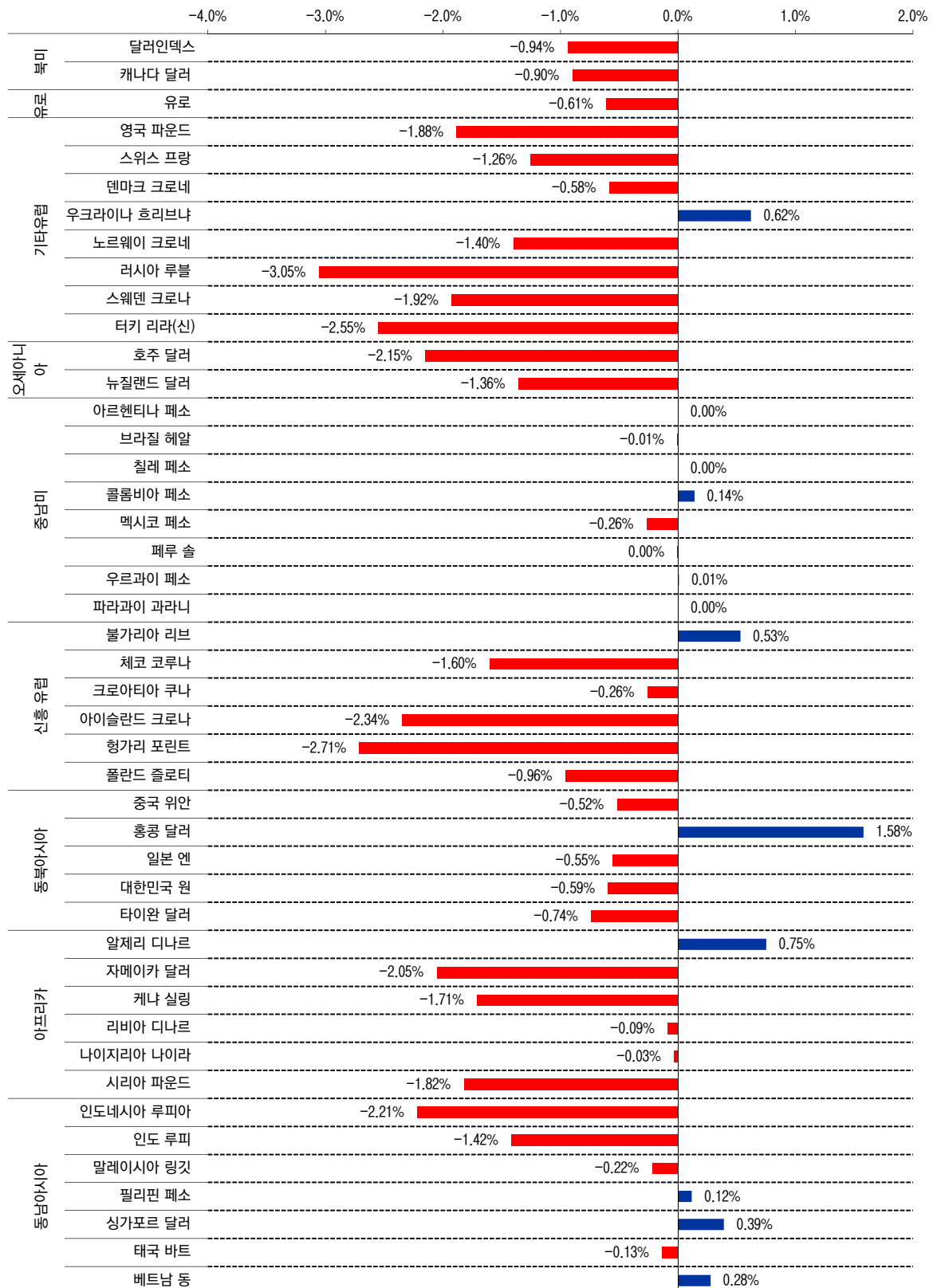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주간 지역별 환율 변화

지역	화폐	Today	1D	1W	1M	YTD	YoY
북미	달러인덱스	100.30	-0.06%	-0.94%	-0.87%	-2.41%	5.85%
	캐나다 달러	1.34	0.32%	-0.90%	2.08%	-0.53%	2.68%
유로	유로	1.07	-0.13%	-0.61%	-1.75%	-2.45%	5.17%
기타유럽	영국 파운드	1.24	-1.15%	-1.88%	0.31%	-0.72%	13.59%
	스위스 프랑	1.00	-0.06%	-1.26%	-1.06%	-2.40%	2.94%
	덴마크 크로네	6.92	-0.11%	-0.58%	-1.74%	-2.39%	5.16%
	우크라이나 흐리브나	26.91	-0.19%	0.62%	-0.24%	-1.43%	1.74%
	노르웨이 크로네	8.48	-0.81%	-1.40%	0.96%	-1.84%	0.99%
	러시아 루블	57.18	-1.47%	-3.05%	-0.26%	-6.76%	-16.47%
	스웨덴 크로나	8.84	-0.41%	-1.92%	-1.49%	-2.84%	8.03%
	터키 리라(신)	3.64	-0.79%	-2.55%	-0.53%	2.73%	27.40%
오세아니아	호주 달러	0.77	-0.34%	-2.15%	-0.35%	-7.31%	-0.93%
	뉴질랜드 달러	0.70	-0.40%	-1.36%	2.16%	-1.30%	-2.92%
중남미	아르헨티나 페소	15.56	0.20%	0.00%	1.22%	-2.40%	4.24%
	브라질 헤알	3.09	-0.88%	-0.01%	1.12%	-5.91%	-14.79%
	칠레 페소	662.28	-0.01%	0.00%	3.63%	-1.21%	-1.11%
	콜롬비아 페소	2913.56	-0.29%	0.14%	1.46%	-2.95%	-5.21%
	멕시코 페소	19.08	-0.50%	-0.26%	-6.06%	-7.94%	8.94%
	페루 솔	3.25	-0.18%	0.00%	0.21%	-3.48%	-3.45%
	우르과이 페소	28.25	0.43%	0.01%	-0.56%	-3.67%	-12.13%
	파라과이 과라니	5517.70	0.02%	0.00%	-3.79%	-4.65%	-2.73%
신흥 유럽	불가리아 리브	1.82	-0.18%	0.53%	-1.77%	-2.32%	5.41%
	체코 코루나	25.16	-0.13%	-1.60%	-1.73%	-2.39%	5.34%
	크로아티아 쿠나	6.90	-0.27%	-0.26%	-2.37%	-4.21%	3.71%
	아이슬란드 크로나	108.63	-1.18%	-2.34%	-2.85%	-4.40%	-12.73%
	헝가리 포린트	287.23	-0.60%	-2.71%	-1.70%	-2.72%	4.76%
	폴란드 즐로티	3.99	-0.62%	-0.96%	-2.05%	-5.21%	5.37%
동북아시아	중국 위안	6.90	0.08%	-0.52%	0.47%	-0.60%	6.58%
	홍콩 달러	7.76	-0.02%	1.58%	0.00%	0.07%	0.07%
	일본 엔	112.70	-0.70%	-0.55%	-1.58%	-3.97%	1.26%
	대한민국 원	1131.77	-0.03%	-0.59%	-0.91%	-6.31%	-3.53%
	타이완 달러	30.63	-0.11%	-0.74%	-0.35%	-5.24%	-6.01%
아프리카	알제리 디나르	109.54	-0.16%	0.75%	-0.67%	-0.98%	0.21%
	자메이카 달러	128.85	-0.12%	-2.05%	0.98%	0.00%	5.92%
	케냐 실링	103.00	-0.02%	-1.71%	-0.59%	0.48%	1.48%
	리비아 디나르	1.43	0.44%	-0.09%	-0.26%	-1.02%	4.81%
	나이지리아 나이라	315.54	-0.15%	-0.03%	0.17%	0.07%	59.08%
	시리아 파운드	214.05	0.00%	-1.82%	0.00%	0.00%	-2.54%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	13345.00	-0.01%	-2.21%	0.21%	-0.95%	2.07%
	인도 루피	65.48	0.10%	-1.42%	-2.14%	-4.03%	-1.90%
	말레이시아 링깃	4.44	-0.06%	-0.22%	-0.30%	-1.13%	9.35%
	필리핀 페소	50.17	-0.02%	0.12%	0.50%	1.05%	8.36%
	싱가포르 달러	1.40	-0.11%	0.39%	-1.48%	-3.29%	3.44%
	태국 바트	34.84	-0.55%	-0.13%	-0.49%	-2.78%	0.11%
	베트남 동	22784.00	0.04%	0.28%	0.09%	0.10%	2.21%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주간 환율 변동



주: 붉은색이 강세, 푸른색이 약세(달러인덱스, 유로, 영국 파운드, 호주달러, 뉴질랜드달러는 반대), 달러화 대비 가치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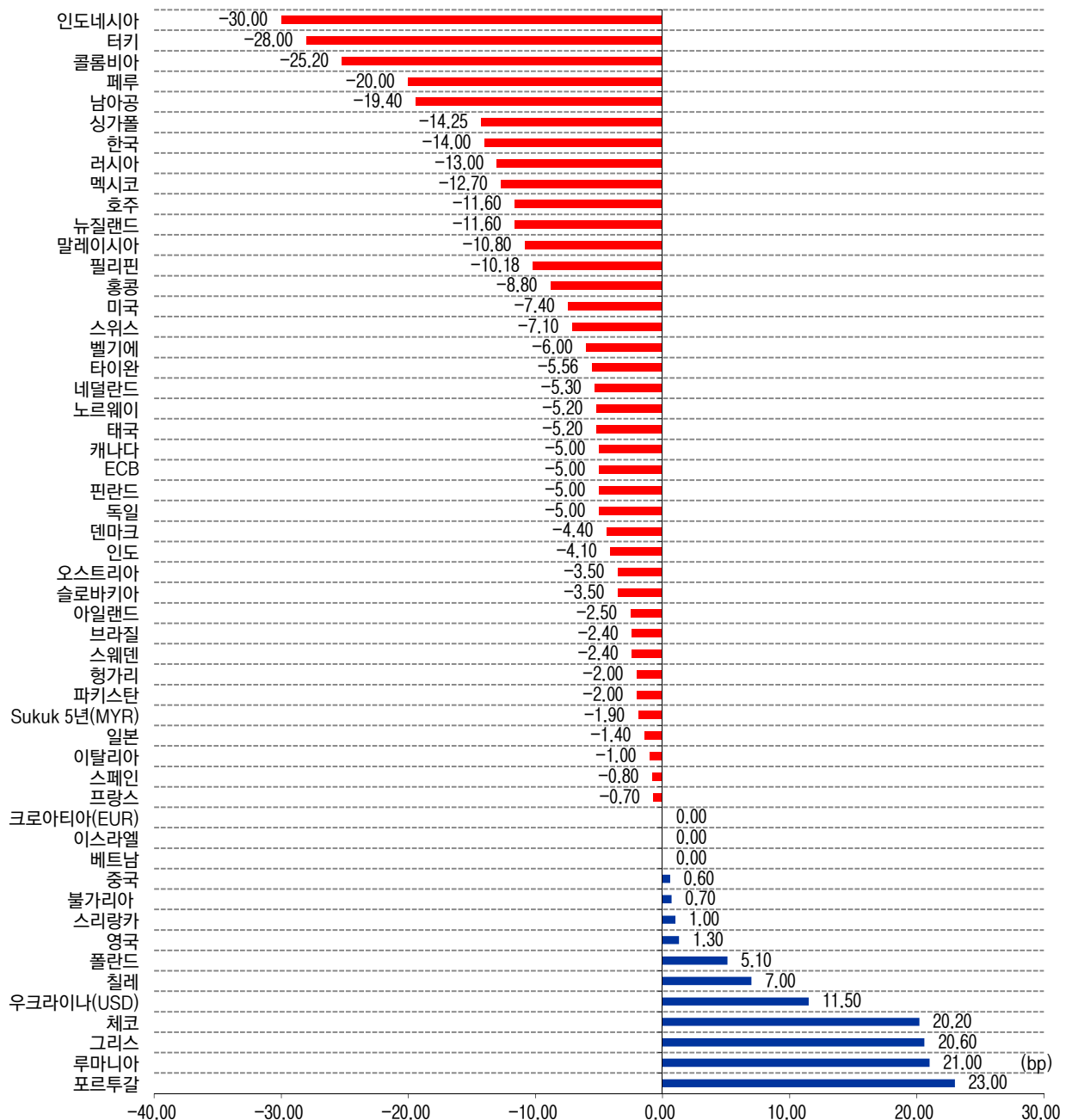
표5 국내 10 년물 수익률 변화

수익률 변화(bp)	Today	1D	1W	1M	YTD	YoY
호주	2.86	4.50	-11.60	7.30	9.60	30.80
오스트리아	0.63	-1.10	-3.50	-0.80	22.30	19.40
벨기에	0.93	-1.10	-6.00	3.30	40.50	31.00
브라질	10.23	0.00	-2.40	-11.00	-100.50	-379.10
불가리아	1.73	-1.30	0.70	0.10	-18.00	-89.70
캐나다	1.76	-4.10	-5.00	-2.30	4.00	47.20
중국	4.44	-0.85	0.60	11.16	49.44	38.88
칠레	4.36	0.00	7.00	20.00	0.00	-7.00
콜롬비아	6.84	-5.90	-25.20	0.80	-26.80	-136.70
크로아티아	3.38	0.00	0.00	0.00	0.00	0.00
체코	0.93	0.40	20.20	31.10	48.00	58.20
덴마크	0.71	-1.20	-4.40	1.90	40.30	16.90
ECB	0.44	-1.30	-5.00	6.20	24.60	20.50
핀란드	0.55	-0.50	-5.00	-1.10	21.20	1.80
프랑스	1.11	1.70	-0.70	5.60	43.90	54.00
독일	0.44	-1.30	-5.00	6.20	24.60	20.50
그리스	7.39	4.10	20.60	-35.80	26.60	-136.20
홍콩	1.87	0.00	-8.80	-0.30	-10.10	57.70
헝가리	3.61	0.00	-2.00	2.00	45.00	52.00
인도	6.86	2.20	-4.10	0.10	45.40	-65.90
인도네시아	7.22	-4.60	-30.00	-32.80	-74.90	-41.10
이탈리아	2.36	-0.90	-1.00	11.50	61.40	133.00
아일랜드	1.14	-0.70	-2.50	5.30	39.30	31.50
이스라엘	2.36	0.00	0.00	-6.00	33.00	47.00
일본	0.08	0.00	-1.40	-1.60	2.90	11.90
말레이시아	4.09	-0.30	-10.80	-3.00	-14.20	19.70
Sukuk 5년	3.89	0.30	-1.90	11.60	-3.90	23.00
멕시코	7.27	-2.00	-12.70	-13.20	-20.10	128.10
네덜란드	0.69	-1.00	-5.30	-0.70	35.30	35.70
뉴질랜드	3.28	2.60	-11.60	-1.50	-4.70	23.50
노르웨이	1.81	0.40	-5.20	8.00	15.70	51.20
파키스탄	8.23	-1.00	-2.00	8.00	-29.00	-33.00
페루	5.93	-5.00	-20.00	-20.00	-51.00	-116.00
필리핀	5.11	2.68	-10.18	23.39	48.75	14.26
폴란드	1.32	0.20	5.10	-4.40	4.10	4.50
포르투갈	4.29	-1.10	23.00	19.90	58.10	143.10
루마니아	4.02	27.10	21.00	36.80	55.00	72.90
러시아	8.13	2.89	-13.00	-11.39	-32.68	-97.10
싱가폴	2.32	-3.34	-14.25	7.49	-15.47	28.58
슬로바키아	1.17	-0.90	-3.50	7.20	27.50	75.80
남아공	8.50	-3.90	-19.40	-7.30	-42.30	-65.80
한국	2.17	-1.00	-14.00	1.70	12.00	31.00
스페인	1.88	-1.80	-0.80	19.80	54.90	45.20
스리랑카	12.91	1.00	1.00	39.00	48.00	126.00
스웨덴	0.75	-1.50	-2.40	0.60	20.80	18.80
스위스	-0.01	-0.40	-7.10	6.00	17.40	28.50

타이완	1.18	0.71	-5.56	-7.07	-3.97	33.36
태국	2.75	0.00	-5.20	7.90	10.50	96.40
터키	10.99	-9.00	-28.00	1.00	-51.00	95.00
우크라이나(USD)	9.27	1.60	11.50	78.10	50.80	-43.40
영국	1.24	-0.50	1.30	-5.30	0.50	-21.10
미국	2.50	-3.97	-7.40	0.73	5.62	60.47
베트남	6.08	0.00	0.00	-7.00	-12.00	-82.00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주간 국채 10 년물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